

대전지역 중년부부의 성생활이 요통발생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심충섭

Low Back Pain Incidence by the Sexual Style of the Middle-age Coupled

Shim, Choong-Seob, R.P.T., M.A.

Graduate school of Regional Science, Han Nam University

— ABSTRACT —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grasp the relation between lumbago incidence rate and research hypothesis in the effects of sex life of the middle-aged couples in Taejon area upon lumbago. And so, this writer had questionnaire the 400 middle-aged couples in five gus, Taejon megalopolis — Jung-gu, Seo-gu, Dong-gu, Yuseong-gu, and Taedeok-gu — from April 21, 1998 to May 10, 1998. Of them, total 209 question papers were drawn back; male 102, female 107. Analysis of the data is as follows.

1. 145(69.37%) subjects of total 209 had experience in lumbago after their sexual lives.
2. In the number of sex life a week, one or two times of lumbago incidence rate were the most rate as 41.55% and each other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P 0.01).
3. In age and lumbago incidence rate, their thirties was 37.75% and each other had a significant relation (P 0.05).
4. In weight and lumbago incidence rate, the level of 50kg~60kg was highest and each other didn't have a significant relation (P 0.05).
5. In the mean time of sexual life, the period of 11~20 minutes was 29.47% and each other had a significant relation (P 0.01).
6. In week time zone of sexual life and lumbago incidence rate, midnight was the highest rate, 36.23% and each other didn't have a significant relation (P 0.05).
7. In the lumbago incidence rate according to bedroom structure of sexual life, a bed was 38.17% and each other had a significant relation (P 0.05).
8. In the lumbago incidence rate according to sexual posture, a normal position showed the highest

rate, 46.12% and each other didn't have a significant relation ($P > 0.05$).

Putting the abovesaid results together, lumbago has relation to the number of sex life a week, age, the mean time of sexual life, and bedroom structure of sexual life.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hat middle-aged couples periodically study the educational programs to make an education for lumbago prevention, etc. the key points.

Key words; Low Back Pain Incidence, Sexual Style, Middle-age Coupled

I. 서 론

요통이란 인간이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생체역학적 기능부전 증후군이다. 기존의 요통발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신체적, 직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조사되어 왔으나, 성생활의 행태적 특성으로 접근한 연구는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성행태와 요통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인데 이는 우리나라가 성 자체를 사회적으로 공개하기 꺼려하는 경향으로 사려되어진다. 본 연구자들은 요통발생율이 주로 중년층에서 높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부생활이 요통발생의 한 변수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않은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30~4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부생활이 요통발생에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요통예방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수집하고, 건강한 성생활에 바람직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중년층의 부부생활이 요통발생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둘째, 부부생활후 발생하는 요통치료 및 예방지침을 제공한다.

셋째, 요통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중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연구의 제한점 첫째, 연구대상자들을 대전지역 성인 남·여 중년층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모든 성인의 부부생활에 따른 요통양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이 있다. 둘째, 설문지 작성에 있어서 응답자의 솔직한 표현 신뢰도에 부분적인 제약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1998년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대전시 중구·서구·동구·유성구·대덕구에서 각 구당 80명씩 무작위로 총 4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내용의 취지를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중 내용이 빈약하고 불충분한 자료들을 제외한 남자 102명, 여자 107명 총 209명(설문지 응답율; 52.25%)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에게 총 33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의 요인별 조사항목으로는,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성별, 연령, 체중, 신장, 학력, 경제력, 자녀수 문항

둘째, 생활특성으로서 결혼상태, (시)부모와의 동거
유무, 결혼성사과정 문항
셋째, 건강특성으로서 질병유무, 요통경험, 유산유
무, 운동시행 문항
넷째, 부부생활과 요통발생과의 관련성, 요통 지속
기간, 요통 정도, 요통 표현 여부, 요통치료
유무, 요통의 주 상담자 등의 문항
다섯째, 환경적 특성으로서 침실구조, 환경 조성도,
부부생활 주 시간대, 부부생활 방해요소 문
항
여섯째, 행태적 특성으로서 배우자 접근 욕구도, 의
사 표시, 횟수, 지속시간, 주된 부부생활
체위, 부부갈등 후 성생활 유무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들을 코딩후 SAS package를 이용하여
요통발생과 관련된 부부생활 변수들을 실수와 백분율
로 일단 처리하였으며, 그 유의성을 χ^2 test로 검증하
였다.

III. 결 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209명중 남자가 49.3%, 여자가
50.7%로 여자가 약간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58.7%, 40대가 41.3%로 30대가 많았으며, 체중별로
는 50kg대가 38.2%, 60kg 대가 36.2%순서로 많았
고 신장은 160~169cm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이 51.0% 대졸이상이 33.2%였으며 초등
졸이 2.9% 가장 적었다.

월평균 가구당 수입에서는 150~199만원이 32.5%

Table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일반적 특성	명(%)
성 별	
남자	103(49.3)
여자	106(50.7)
계	209(100)
연 령	
30~39세	121(58.7)
40~49세	85(41.3)
계	206(100)
체 중	
40~49kg	15(7.2)
50~59kg	79(38.2)
60~69kg	75(36.2)
70~79kg	31(15.0)
80kg이상	7(3.4)
계	207(100)
신 장	
140~149cm	0(0)
150~159cm	51(24.8)
160~169cm	98(47.6)
170~179cm	50(24.3)
180cm이상	7(3.4)
계	206(100)
학 력	
초등졸	6(2.9)
중 졸	27(13.0)
고 졸	106(51.0)
대학이상	69(33.2)
계	208(100)
월평균 가구당 수입	
49만원이하	3(1.5)
50~99만원	32(16.2)
100~149만원	50(25.4)
150~199만원	64(32.5)
200~249만원	41(20.8)
250만원 이상	7(3.6)
계	197(100)
자녀 수	
0명	9(4.3)
1명	32(15.3)
2명	135(64.6)
3명이상	33(15.8)
계	209(100)

로 가장 많았고, 49만원이하가 1.5%로 가장 적었다. 자녀수는 2명이 64.6%로 가장 많았고, 3명 이상이 15.8%, 1명이 15.3%, 0명이 4.3% 순이었다. 가구당 수입이 평균 도시 가구당 수입 보다 적은 이유는 조사 싯점이 국제구조금융(I.M.F.) 구조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의 감소로 생각된다(Table 1).

2. 결혼특성

조사 대상자의 결혼특성에서는 초혼이 90.3%이고 재혼이 9.7%로 초혼이 절대적이었다. 결혼지속 상태에서는 11~15년째가 32.5%로 가장 많았고, 6~10년이 26.8%, 16년이상이 23.9%, 0~5년이 16.7%로 가장 적었다. 부모님과의 동거여부에서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가 80.4%였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가 19.6%였다. 결혼성사과정에서는 연애결혼이 60.3%, 중매결혼이 38.8%, 기타가 1.0%였다. (Table 2).

Table 2. 결혼특성

단위: 명(%)

결혼특성	명(%)
결혼의 초·재혼유무	
초 혼	187(90.3)
재 혼	20(9.7)
계	207(100)
결혼지속 기간	
0~5년	35(16.7)
6~10년	56(26.8)
11~15년	68(32.5)
16년 이상	50(23.9)
계	209(100)
부모님 동거 여부	
예	41(19.6)
아니오	168(80.4)
계	209(100)
결혼성사 과정	
연애 결혼	126(60.3)
중매 결혼	81(38.8)
기 타	2(1.0)
계	209(100)

3. 건강특성

조사 대상자의 건강 특성에서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76.4%로 가장 많았고 의심스럽다가 18.3%, 질병이 있다가 5.3%의 순이었다. 요통 예방운동에서는 아니오가 80.4%, 예가 19.6%로 대다수가 요통예방운동을 하지않고 있었다. 유산경험에서는 34.4%가 경험이 있었고, 아니오가 16.7%였다. 해당사항 없음이 48.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남자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Table 3).

4. 부부생활과 요통발생 특성

성생활과 요통과의 관계에서 성생활 후 요통 경험율

Table 3. 건강특성

단위: 명(%)

건강 특성	명(%)
건 강 상 태	
건강하다	159(76.4)
의심스럽다	38(18.3)
질병이 있다	11(5.3)
계	208(100)
요통 예방운동 유무	
예	41(19.6)
아니오	168(80.4)
계	209(100)
요통경험 유무	
예	134(64.1)
아니오	75(35.9)
계	209(100)
유산경험 유무	
해당사항 없음	102(48.8)
예	72(34.4)
아니오	35(16.7)
계	209(100)
유산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138(66.0)
인공유산	48(23.0)
자연유산	23(11.0)
계	209(100)

은 67.94%이었고 아니오가 32.06%이었으며, 성생활 후 요통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횟수가 45.2%로 가장 많았고 성체위가 24.9%, 변태적 성행위가 18.6%, 기타가 11.3%였다. 요통의 지속시간은 1~2일이 30.4%로 가장 많았고 1주일 이상이 13.0%, 3일 이상이 11.1%, 1달 이상이 2.4%이고 해당 사항 없음은 43.0%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성생활 후 요통경험이 없는 사람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이다. 요통의 표현 여

Table 4. 부부생활과 요통발생 특성

단위: 명(%)

부부생활과 요통발생 특성	명(%)
성생활 후 요통경험 유무	
예	145(70.0)
아니오	62(30.0)
계	207(100)
성생활 후 요통의 원인	
해당 사항 없음	80(38.2)
과도한 횟수	44(21.1)
성체위	33(15.8)
변태성 성생활	20(9.6)
기타	32(15.3)
계	209(100)
요통지속 기간	
해당 사항 없음	89(43.0)
1~2일	63(30.4)
3일이상	23(11.1)
1주일 이상	27(13.0)
1개월 이상	5(2.4)
계	207(100)
성생활 후 요통표현 여부	
예	182(87.5)
아니오	26(12.5)
계	208(100)
요통치료 유무	
예	180(86.1)
아니오	29(13.9)
계	209(100)
요통상담 상대	
배우자	178(85.2)
친구	24(11.5)
기타	7(3.3)
계	209(100)

부에서는 87.5%가 배우자에게 표현을 했으며 아니오는 12.5%였다. 요통 치료 유무에서는 86.1%가 치료를 받겠다고 했고 13.9%가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요통 주상담자는 배우자가 85.2%였고 친구가 11.5%, 기타가 3.3%였다(Table 4).

5. 부부생활의 환경적 특성

부부생활과 환경적 특성에서는 침실구조에서 일반적 침대가 50.2%로 가장 많았고 온돌이 45.5%, 물침대 등 특수침대가 4.3%였다. 부부생활과 병행하는 보

Table 5. 부부생활의 환경적 특성

단위: 명(%)

환경적 특성	명(%)
부부생활 침실구조	
온돌침대	95(45.5)
일반적 침대	105(50.2)
물침대등 특수침대	9(4.3)
계	209(100)
환경 조성도	
행위전 음주	25(12.0)
포르노 테이프 시청	25(12.0)
음악	21(10.0)
기타	138(66.0)
계	209(100)
부부생활 주 시간대	
초저녁	19(9.1)
심야	109(52.2)
새벽녘	42(20.1)
기타	39(18.7)
계	209(100)
부부생활시 주위의식 여부	
예	169(80.9)
아니오	40(19.1)
계	209(100)
부부생활시 주위의식 대상자	
해당 사항 없음	40(19.1)
부모	26(12.4)
자녀	143(68.4)
계	209(100)

조수단들에는 기타 사항이 66.0%로 가장 많았고 행위 전 음주 12.0%, 비디오 시청 12.0%, 음악 청취가 10.0%의 순이었다. 부부생활 주 시간대는 심야가 52.2%로 가장 많았고 새벽녘 20.1%, 기타가 18.7%였고, 초저녁이 9.1%로 가장 적었다. 부부생활 주위 의식 여부에서는 의식한다가 80.9%로 의식하지 않는다의 19.1% 보다 월등히 높았다. 부부생활시 의식 대상

Table 6. 부부생활의 행태적 특성

단위: 명(%)

행태적 특성	명(%)
부부생활의 욕구 충동	
즉흥적	141(67.5)
사전 준비적	68(32.5)
계	209(100)
부부생활의 배우자 태도	
일방적이다	53(25.4)
합의에 의한다	156(74.6)
계	209(100)
주당 부부생활 횟수	
0회	23(11.12)
1~2회	116(56.04)
3~4회	44(21.26)
5~6회	19(9.18)
7회 이상	5(2.42)
계	207(100)
부부생활 평균 시간대	
10분미만	58(27.8)
11~20분	79(37.8)
21~30분	60(28.7)
30분 이상	12(5.7)
계	209(100)
부부생활의 주된 체위	
정상위	136(65.4)
여상남하	22(10.6)
측와위	5(2.4)
좌 위	16(7.7)
기 타	29(13.9)
계	208(100)
부부갈등후 성생활 유무	
있 다	104(50.2)
없 다	103(49.8)
계	207(100)

자는 자녀가 68.4%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12.4%였으며 의식하지 않는다가 19.1%였다(Table 5).

6. 부부생활의 행태적 특성

부부생활시 행동적 특성에서 욕구 충동은 즉흥적이 67.5%이고 사전 준비적이 32.5%였다. 배우자의 태도에서 합의에 의한다가 74.6%, 일방적이다가 25.4%였다. 주당 부부 생활횟수에서는 1~2회가 56.04%로 가장 많았고, 3~4회 21.26%, 5~6회 9.18%, 7회 이상이 2.42%이고 0회가 11.12%였다. 여기서 0회라 함은 주당이 아닌 월 1~3회 미만으로 주당 한 번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부부생활 평균 시간대에서는 11~20분대가 37.8%로 가장 많았고 21~30분이 28.7%, 10분 미만 27.8%, 30분이상 5.7% 순이었다. 부부생활 주된 체위로는 정상위가 65.4%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13.9%, 여성남하 10.6%, 좌위 7.7%, 측와위 2.4% 순이었다. 부부갈등후 성생활 유무는 50.2%가 경험이 있었고 49.8%가 없었다(Table 6).

7. 부부생활과 요통발생 변수와의 관계

전체 조사 대상자 209명 중 145명(69.38%)이 부부생활 후 요통을 경험하였다. 주당 부부생활 횟수에 따른 요통발생은 주 1~2회가 41.55%로 가장 많았으며, 7회이상이 1.93%로 가장 적었다. 주당 부부생활 횟수와 요통발생과는 유의성이 있었다($P < 0.01$). 연령에 따른 요통발생은 30대가 37.75%, 40대가 32.35%였고 유의성이 있었다($P < 0.05$). 체중에 따른 요통발생은 50kg대가 28.78%, 60kg대가 25.85%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80kg이상이 2.93%로 가장 적었다. 체중과 요통발생과는 유의성이 없었다($P > 0.05$). 부부생활 평균 시간대와 요통발생은 11~20분대에서 29.47%로 가장 높았으며 10분 미만이 20.77%, 21분

Table 7. 부부생활과 유통발생 변수와의 관계

단위: 명(%)

유통발생 변수	요통	계	χ^2 값	Prob.
	유	무		
부부 생활 횟수				
0회	18(8.70)	5(2.42)	23(12.12)	
1~2회	86(41.55)	30(14.49)	116(56.04)	
3~4회	30(14.49)	14(6.76)	44(21.26)	11.959
5~6회	7(3.38)	12(5.80)	19(9.18)	
7회 이상	4(1.93)	1(0.48)	5(2.42)	
계	145(70.05)	62(29.95)	207(100.00)	
연령				
30~39세	77(37.75)	42(20.59)	119(58.33)	
40~49세	66(32.35)	19(9.31)	85(41.67)	3.962
계	143(70.10)	61(29.90)	204(100)	0.047 *
체중				
40~49kg	10(4.88)	5(2.44)	15(7.32)	
50~59kg	59(28.78)	19(9.27)	78(38.05)	
60~69kg	53(25.85)	21(10.24)	74(36.10)	7.196
70~79kg	16(7.80)	15(7.32)	31(15.12)	
80kg	이상	6(2.93)	1(0.49)	7(3.41)
계	144(70.24)	61(29.76)	205(100)	
부부생활과 평균시간대				
10분미만	43(20.77)	14(6.76)	57(27.54)	
11~20분	61(29.47)	17(8.21)	78(37.68)	
21~30분	32(15.46)	28(13.53)	60(28.99)	11.393
30분이상	9(4.35)	3(1.45)	12(5.80)	
계	145(70.05)	62(29.95)	207(100)	0.010 **
부부생활의 주시간대				
초저녁	14(6.76)	5(2.42)	19(9.18)	
심야	75(36.23)	34(16.43)	109(52.66)	
새벽녘	31(14.98)	11(5.31)	42(20.29)	0.591
기타	25(12.08)	12(5.80)	37(17.87)	
계	145(70.05)	62(29.95)	207(100)	0.898
부부생활의 주된 체위				
정상위	95(46.12)	39(18.93)	134(65.05)	
여성상위	14(6.80)	8(3.88)	22(10.68)	
측화위	4(1.94)	1(0.49)	5(2.43)	
좌위	10(4.85)	6(2.91)	16(7.77)	1.219
기타	21(10.19)	8(3.88)	29(14.08)	
계	144(69.90)	62(30.10)	206(100.00)	0.875
부부생활의 침실 구조				
일반적 침대	74(35.75)	19(9.18)	93(44.93)	7.508
온돌	66(31.88)	39(18.84)	105(50.72)	
특수침대	5(2.42)	4(1.93)	9(4.35)	
계	145(70.05)	62(29.95)	207(100.00)	0.023

~30분이 15.46%로 비슷하였고, 30분 이상이 4.35%로 가장 적었으며, 유의성이 있었다($P < 0.01$). 부부생활의 주 시간대에 따른 요통발생은 심야가 36.23%로 가장 많았고, 초저녁이 6.76%로 가장 적었다. 부부생활의 주 시간대와 요통과는 유의성이 없었다($P > 0.05$). 부부생활의 주된 체위와 요통발생은 정상위가 46.12%로 가장 많았고, 측와위가 1.94%로 가장 적었으며, 유의성은 없었다($P > 0.05$). 부부생활의 환경적 특성에서 요통발생은 침대에서 35.75%로 가장 많았고, 온돌은 31.88%, 특수침대는 2.42%로 가장 적었다. 부부생활의 침실사용과 요통발생과는 유의성이 있었다($P < 0.05$)(Table 7).

IV. 고찰

요통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이승재(1985)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김현숙(1989)의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이충희(1990)의 물리치료사의 요통 발생에 관한 연구, 박지환(1990)의 사무직 근로자와 육체 노동자의 요통특성 비교연구, 명길재(1991)의 간호사의 요통에 관한 연구, 최인수(1991)의 택시 운전 기사에 관한 요통연구, 김순자(1997)의 노인요통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나, 아직 성생활이라는 행태적 요인에 의한 요통발생에 관한 선행논문들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요통 관련문헌들과 비교하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대전지역 중년부부의 요통발생빈도를 보면 64.1%로 조사된 바, Nachemson(1983)의 80%와 비교할 때 많이 낮은 수치이나 일반 인구집단의 요통발생률 60~80%(Hult, 1954., Nachemson, 1966., Hirsh 등, 1969., Cailliet, 1981., Biering-Sorenson 및 Thomason, 1986., Kelsey와 Golden, 1988)와 비슷하였으며, 박지환(1990)의 79.7%, 전제균(1994)의 75.2%에 비해서는 약간 낮게 났으며, 김광희(1979)의

27.9%, Harber(1985)의 52%, 한문식(1987)의 31.4%, 명길재(1991)의 간호사 요통발생률 44.7%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한편 Hult(1954)는 성인의 65%, Cailliet(1966)는 70%, Kelsey(1975)는 75%, 그리고 Biering-Sorenson과 Thomason(1986)은 81%라고 조사한 바 이는 현대 사회로 나아갈수록 요통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통발생 연령은 30대가 58.7%, 40대가 41.3%로 30대가 많았으며 연령과 요통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P < 0.05$). 이는 젊은 층 부부일수록 성생활 횟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사려 되어진다. 조사 대상자의 체중에 따른 요통발생 빈도에서는 50kg대가 38.2%, 60kg대가 36.2%로 50~60kg대가 전체의 74.4%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체중이 적게 나가는 여자 응답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장에서는 160~169cm(47.6%)에서 요통발생이 가장 많았다. Rowe(1971), Westrin 등(1972), Chaffin과 Park(1973)은 신장과 체중이 요통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Tauber(1970)는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보다 요통발생빈도가 높다고 보고 하였고, 박지환(1990)의 연구에서는 비만집단에서 요통(85.9%)이 더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고하였다. Cailliet(1981)는 비만인 사람이 요천추 각을 증가시켜 전만이 증대되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게 되어 요통을 쉽게 유발시키게 되므로, 요통의 75%는 척추의 전만증에서 기인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Berg 등(1988)은 임신한 여자중 50%가 요통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Cust 등(1972)은 과체중 혹은 저체중인 경우에 요통 발생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체중·신장에서는 요통발생과의 유의성이 없었고, 연령에서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건강특성에서는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불량한 경우보다 요통이 적었는데, 이는 전제균(1994)의

건강상태가 양호(57.0%) 할수록 불량한 집단(93.9%) 보다 요통발생이 적었으며, 박지환(1990)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요통발생이 적었다는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평소 운동에서도 요통예방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요통발생 빈도가 낮았다. 이는 박지환(1990), 전제균(1992)의 연구에서도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집단에서 요통에 폭로될 위험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또 Nutter(1988)는 규칙적인 운동이 근력과 지구력을 증가시켜 부적절한 생체역학적 구조로 야기 되는 요통을 예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부생활의 환경특성에서는 침대생활이 38.17%, 온돌생활이 31.88%로 침대생활자가 더 많았으며 요통발생률도 침대생활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제균(1994)의 수면장소에 따른 요통발생률에서 침대사용자의 80.0%, 온돌사용자의 74.2%에서 요통을 호소하였으며, 박지환(1990)의 온돌수면(76.5%) 시 보다 침대수면(90.1%) 시 요통이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부생활의 보조수단들에서는 행위전 음주(12.08%), 비디오 시청(12.08%), 음악청취(10.14%), 무(65.70%)로 각각 응답하였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들이 부부생활과 병행하는 마땅한 보조수단들이 없거나 사용치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생활의 주 시간대에서는 심야(36.23%)가 가장 많았고, 새벽녘(14.98%), 초저녁(6.7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부생활시 부모나 자녀를 의식해서 심야나 새벽녘으로 조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의 작업이나 운동수행 과정에서 허리에 손상이 올수있듯이 성행위 동작 자체도 그날의 신체적·심리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 요통발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생활과 요통발생과의 관련성에서 부부생활 후 요통 경험율이 69.37%로, 대전지역 중년층의 일반적인 요통발생 빈도 64.1%를 상회하고 있어 성생활이 요통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대전지역 중년부부들이 요통 예방운동을 하

고 있지 않는 것(80.4%)도 요통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생활과 요통발생 변수에서 과도한 횟수(21.1%), 체위(15.8%), 변태적 형태(9.6%), 기타(15.3%), 해당사항 없음(38.2%)으로 각각 나타나, 부부생활의 여러가지 복합요인에 의해서 요통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부부생활시 행태적 특성에서 주당 부부생활 횟수가 주 1-2회 집단에서 요통발생이 41.55%로 가장 많았으며, 3-4회가 14.49%, 5-6회가 3.38%, 7회 이상이 1.93%로 가장 적었으며 유의성이 있었다($P < 0.01$). 30-40대의 연령 층은 성적 성숙기에 접어들어 결혼생활 중 성생활이 가장 빈번한 계층에 해당하므로 성생활로 인한 요통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은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생활 평균시간에서 요통발생이 11-20분대에서 29.47%로 가장 높았고, 10분미만이 20.77%, 21-30분대가 15.46%, 30분 이상이 4.35% 순 이었으며, 높은 유의성을 보였다($P < 0.01$). 부부생활의 주된 체위에서는 정상위가 46.12%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가 10.19%, 여성상위가 6.80%, 좌위가 4.85%, 측위위가 1.94% 순 이었다. 일반적으로 부부생활의 체위가 요통발생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대전지역 30-40대 중년층 부부생활이 요통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199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대전광역시 5개구에서 중년부부 4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실시하였으며, 총 209명(남자 102명, 여자 107명)에 대한 자료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조사 대상자 209명 중 145명(69.37%)에서 부부생활 후 요통경험이 있었다.
2. 주당 부부생활 횟수에서 주 1-2회의 요통발생률

- 이 41.55%로 가장 많았으며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P < 0.01$).
3. 연령에 따른 요통발생률은 30대(37.75%)에서 가장 높았고 유의성이 있었다($P < 0.05$).
 4. 체중에 따른 요통발생률은 50kg~60kg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유의성이 없었다($P > 0.05$).
 5. 부부생활 평균시간은 11~20분대(29.47%)에서 요통발생이 가장 높았고 유의성이 있었다($P < 0.01$).
 6. 부부생활의 주 시간대와 요통발생률에서는 심야가 36.23%로 가장 많았으며 유의성이 없었다($P > 0.05$).
 7. 부부생활의 환경에 따른 요통발생률은 침대생활 자가 38.17%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성이 있었다($P < 0.05$).
 8. 부부생활 체위에 따른 요통발생률은 정상위가 46.12%로 가장 많았으며 유의성이 없었다($P > 0.05$).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에 중년층에서의 부부생활에 따른 요통발생은 주당 부부생활 횟수, 연령, 평균시간, 부부생활 환경구조가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참 고 문 헌

- 고 차환, 권 희규, 오 정희: 요통의 보존적 치료 효과. 대한재활의학회지 13(2): pp160~169, 1989.
- 권 미지, 황보 각, 김 진상: 똑바로 선 자세에서 정상인과 요통환자의 체중분배에 관한 비교. 대한물리치료학회지 5(1): pp9~15, 1993.
- 김 광희, 이 열: 요통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4(3): 1979.
- 김 순자: 노인요통에 관련된 요인조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4(1): pp63~73, 1997.
- 김 영민: 요통의 원인과 진단. 최신의학 18(8): 1975.
- 김 현숙: 석탄광산 근로자의 요통에 관한 역학적 연구.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논문. 1989.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대한정형외과학회. p286. 1986.
- 명 길재: 일부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요통발생에 관한 조사연구. 충남대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문 재호, 이 영희, 박 정미: 요통의 재활치료에 대한 고찰. 대한재활의학회지 9(2): pp77~81, 1985.
- 민 병권: 요통의 정신역동. 대한의학협회지 18(7): 1975.
- 박 병문: 요통의 원인과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2(1): pp1~7, 1977.
- 박 윤기: 요부추간판 탈출증의 물리치료에 관한 고찰. 배영학술 논문집 5: pp123~130. 19
- 박 지환: 사무직 근로자와 육체노동자의 요통특성에 관한 비교고찰. 연세대보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1, 1990.
- 박 지환, 박 윤기: 요통의 물리치료적 접근. 대한물리치료학회지 3(1): pp221~227, 1991
- 이 승재: 한국 노동자 요통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인체의학 6(3): pp 437~447, 1985.
- 이 충휘: 물리치료사의 요통발생 위험요인 분석. 연세대보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임 준규, 신 현대: 동의 물리요법과학. 고문사. p281. 1986.
- 장 순복: 자궁절제술 부인의 성생활 만족에 관한 요인분석. 이화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장 인협, 최 성재: 노인 복지학. 서울대출판부.

- pp519-520, 1992.
- 전 재균: 요통환자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4); pp59-67, 1992.
 - 전 재균: 초·중등 교사들의 요통발생 특성에 관한 비교분석. 대한물리치료학회지6(1); pp34-48, 1994.
 - 조 은숙: 정신 위생. 교학연구사. pp82-84, 1991.
 - 최 인수: 택시 운전기사의 요통에 관한 조사. 충남대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한 문식, 이 수용, 박 원수: 요통의 분석 및 관리. 최신의학 27(2); pp , 1987. 현대건강연구회: 완전한 요통치료법. 도서출판 진화당. p7, 1990.
 - Arnoldi C.C.: Intraossous Hypertension. A possible cause of Low Back Pain? Clin. Orthop. : pp , 19 .
 - Babbie ER : Survey Research Methods. Belmont, Cal, Wadsworth. pp , 1973.
 - Berg G, Hammar M, Lindlen U, Moller - Nielsen J, Thorblad J: Low back pain during pregnancy, Obstet Gynecol 71(1) : 71-75, 1988.
 - Biering - Sorenson F, Thomason C: Medical, Social, Occupational history as risk indicators for low back trouble in a general population. Spine 11(7) : 720-725, 1986.
 - Brown F · W · : Management of Discogenic Pain using Fusion Following removal of protruded Nucleus Pulposus. J.B.J.S.. 30 : 971, 1949.
 - Cailliet R: Low back pain 1966.
 - Cailliet R: Low back pain syndrome. 3rd Ed., philadelphia, F.A.Davis Co., 1981.
 - Cairns D, Mooney V, Crane P : Spinal pain rehabilitation : Inpatient and out patient treatment results and development of predictors for outcome. spine 9(1) : 91, 1984.
 - Chaffin DB, Park KS : A longitudinal study of low back pain a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weight lifting factors. Am Ind Hyg Assoc J 34(12) : 513-525, 1973.
 - Cust G, Pearson J, Mair A: The Prevalence of low back pain in nurses. Int Nurs Rev 19(2) : 169-178, 1972.
 - Cyriax J : Textbook of Orthopedic Medicine. London, England, Bailliere Tindall Vol 1, 1978.
 - Finneson, B.E. : B.E. : Low Back pain, J.B.Lippincott Co., Philadelphia, Toronto, 1973.
 - Harber P, Billet E, Gutowski M, Soohoo K : Occupational low back pain in hospital nurses, Joccup Med 27(7), 1985.
 - Harris R.I. and Mac Nab, Iam : Structural changes in the Intervertebral Discs : Their Relationship to Low Back and Sciatica. J.B.J.S., 36 : 304, 1954.
 - Hirsh C, Jonsson B, Lewin T: Low back symptoms in a swedish females population. Clin Orthop 63 : 171-176, 1969.
 - Hirsh C. : Studies on the pathology of Low Back pain. J.B.J.S., 42: 459, 1971.
 - Hult L: Cervical, dorsal and lumbar spine syndromes. Acta orthop scand suppl 24 : 17-18, 1954.
 - Kelsey JL : An epidemiological study of

- acute herniated lumbar intervertebral discs. *Rheu Reh* 14 : 144–159, 1975.
- Kelsey JL, Golden AL : Occupational and work factors associated with low back pain, *State Art Rev Occup Med* 3(1) : 7–16, 1988.
 - MacBryde, C.M, and Backlow, R.S. : *Symtoms*, J.B. Lippincott Co., Philadelphia, Toronto, 1970.
 - Maitland GD : *Vertebral manipulation*. 5th. ed, London, England, Butterworth & Co(publishers) Ltd, 1986.
 - Mckenzie RA: *Treatment your own back*, spinal publication LTD, 1988.
 - Mixter W.J and Barr J.S. : Rupture of the Intervertebral Disc with Involvement of the Spinal Canal. *N. Eng. J. MED*, 211 : 210–215, 1934.
 - Molumphym, Unger B, Jensen GM, Lopolo RB : Incidence of work-related low back pain in physical therapists. *Phys Ther* 65(40): 482–486, 1985.
 - Nachemson A: The load on lumbar discs in different position of the body. *Clin Orthop* 45 : 107–122, 1966.
 - Nachemson A: Work for all. For those with low back pain as well. *clin orthop* 179 : 77–78, 1983.
 - Newmann RI, Serves JL, Yospe LP : Multidisciplinary treatment of Chronic pain : long – term follow – up of low back pain patients. *pain* 4: 283, 1978.
 - Nutter P: Aerobic exercise in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low back pain.
- State Art Rev Occup Med* 3(1). 137–145, 1988.
- Pederson H.E., Blunck C.F.J.and Gardner E. : The Anatomy of Lumbosacral Posterior Rami and Meningeal Branches of spianl Nerves with an Experimental Study of their Functions. *J.B.J.S.*, 38 : 377, 1956.
 - Rowe ML : Low back disabilities in industry. Updated position. *J occup Med* 13 : 476–478, 1971.
 - Sarpyener M.A. : *Spina Bifida Aperta and Congenital Stricture of the Spinal Canal*. *J.B.J.S.*, 29 : 817, 1947
 - Skovron ML, Mulvihill MN, Sterling RC : Work organization and low back pain in nursing personnel, *Ergonomics* 30(2) : 359–366, 1987.
 - Tauber J: An unorthodox look at back- aches. *J Occup Med* 21 : 128–130. 1970.
 - Verbiest H. : A radicular Syndrome from Develop Mental Narrowing of the Lumbar Vertebral Canal. *J.B.J.S.*, 36 : 230, 1954.
 - Westrin CG, Hirsch C, Lindegard B: The personality of the back patient, *Clin Orthop* 87 : 209–216, 1972.